

#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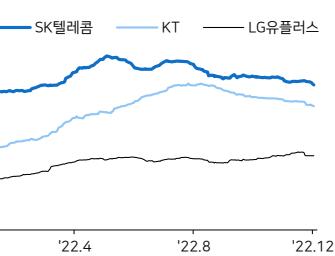


##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1.2	-3.5	0.2	-3.3	11.1	11.4	0.9	0.9	2.2	2.3	
통신업종	-3.0	-1.6	-0.9	-5.9	8.8	7.7	0.7	0.7	6.3	6.7	
SK텔레콤	-2.4	-1.5	-5.1	-6.0	11.4	9.3	0.9	0.9	7.0	7.3	
KT	-3.7	-0.8	1.7	-0.1	7.4	6.9	0.6	0.6	6.2	6.6	
LG유플러스	-2.9	-2.9	3.5	-14.6	7.7	6.9	0.6	0.6	5.4	5.9	
AT&T	-3.1	-2.5	10.5	-4.6	7.1	7.3	1.0	0.9	6.6	6.0	
Verizon	-0.7	-3.7	-10.0	-24.3	7.2	7.4	1.7	1.5	7.0	7.1	
T-Mobile	0.6	-4.3	1.7	11.6	68.9	20.8	2.5	2.6	0.0	0.0	
NTT	-0.6	-3.0	-3.0	-2.1	11.8	10.7	1.6	1.5	3.1	3.3	
KDDI	-0.8	-3.2	-7.2	-8.2	13.4	12.7	1.8	1.7	3.2	3.4	
Softbank	-1.9	-0.4	10.9	26.4	19.7	17.7	0.9	0.8	0.7	0.7	
China Mobile	-0.2	3.6	0.2	3.5	7.7	7.2	0.8	0.7	8.3	9.6	
China Unicom	0.2	19.5	24.1	24.7	7.5	6.7	0.4	0.4	6.5	7.9	
China Telecom	-1.9	7.9	11.7	17.2	9.1	8.1	0.6	0.6	7.1	8.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7% (-0.3%p WoW, -0.4%p MoM)

KT 43.4% (-0.1%p WoW, -0.5%p MoM)

LGU+ 38.0% (+0.0%p WoW, +0.1%p MoM)

SKT, KT, LGU+ 외국인 순매도 기록

## 2 업종 코멘트

### 전자 통증

12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8%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통신 3사 5G 28GHz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 할당취소 청문조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할당취소에 이변은 없을 전망  
SKT, 국회 등 정책당국 요구 맞춰 가입조건 완화-선택권 강화, 온라인 전용 요금제 총 11종으로 확대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LGU+ 순매수

###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 부재  
SKT, 오픈랜 실증 관련 글로벌 행사 '플러그페스트'에 참가해 기지국 장비에 대한 다양한 실증 결과를 발표  
KT, 15일(목) 구현모 대표 '경선 억제안' 수용해 이사회 열고 복수 후보 선정 절차 · 일정 등을 논의  
삼성전자, 美버라이즌 5G 기지국 1만곳에 vRAN 기술 제공. 2025년까지 2만 곳으로 늘린다는 목표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 주간 뉴스

### ▶ 삼성전자, 美버라이즌 5G 기지국 1만곳에 vRAN 기술 제공

(더구루)

- 삼성전자, 버라이즌의 기지국 1만 곳에 5G vRAN 솔루션을 제공. 2025년까지 2만 곳으로 확대 목표
- 이번 5G vRAN 공급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 따낸 약 8조원 규모 통신장비 계약 일환
- 업계에서는 5G에 이어 6G 상용화에도 vRAN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
- ⇒ 대규모 수주를 통해 제품 품질과 공급 능력을 입증,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의 파트너십이 6G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 ▶ 스페이스X, 韓위성통신 시장 눈독… 정부는 '토종기업' 우대

(조선비즈)

- 정부, 외산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대신 토종 기술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에 눈독을 들이지만, 사업권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
- 과기부, 통신 탑재체, 본체 등 5개 분야 핵심기술 확보 위해 24년부터 8년간 6천억 규모 예산 신청
- ⇒ 현재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중. 확보한 예산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투입
- ⇒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면 협력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 합류가 우선

### ▶ '대표 경선' 후보군 선정나선 KT… 김기열 · 이경수 · 노준형 물망

(디지털타임스)

- 구현모 KT 대표는 이사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복수 후보 경선을 억제안
- 이사회를 열고 복수 후보 선정 절차 · 일정 등을 논의. 후보 물망에 오르는 것은 대부분 KT 전현직 인사
- 내부 혼란 가중을 우려해 후보군 심사 일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으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
- ⇒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확정이 해를 넘길 것인 판측 나오고 있는 상황
- ⇒ 이사회는 논의 끝에 구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해

### ▶ KT-신세계, 물류 · 멤버십 · 부동산 DX 혁신 나선다

(데일리안)

- KT-신세계그룹, 온 · 오프라인 통합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 KT AI · DX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세계 오프라인 스토어 디지털화 등 5개 분야에서 협력 추진
- 고객 혜택 증진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 AI 기반 물류 사업 공동 육성에도 집중
- ⇒ 국내 유통 강자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
- ⇒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도 함께 추진할 계획. 미래형 라이프 공간을 선보이는게 목표

### ▶ 새 면거리 키우는 통신 3사, 조직개편 키워드는 AI · 메타버스 · 콘텐츠

(조선비즈)

- SK텔레콤, 'AI(인공지능) 컴퍼니'로 전환을 위해 기존 핵심사업 분야를 AI 중심으로 재편
- LGU+, 고객경험연구 · 이용자경험센터(LSR · UX센터)를 CEO 직속 조직으로 재편
- 이미 KT는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AI · DX 조직을 강화, 2022년 KT클라우드 분사
- ⇒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이후 통신 3사의 사업 전략 지금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될 전망
- ⇒ 통신 3사는 AI 중심 혁신전략 외에도 콘텐츠 역량 강화 등 신사업 강화할 것

### ▶ 이통3사, 28GHz 청문조서 '사실확인' 완료… 할당취소 임박

(아이뉴스24)

- 통신 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 할당취소 청문조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청문 당시 주고받은 말이 오류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정정 요청 없던 것으로 확인
- 과기부, 신규 사업자 진입을 돋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
- ⇒ 정부는 조사 · 의견서가 도달 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
- ⇒ 처분 변경을 위한 '상당한 이유'는 없던 것으로 알려져 주파수 할당취소에 이변은 없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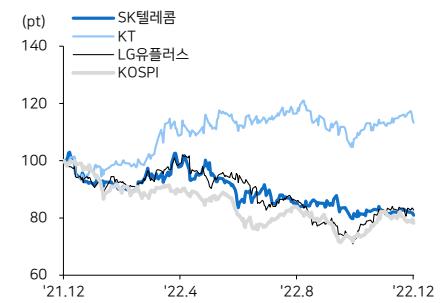
##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48,800	8.2	13.3	13.8	1.3	1.4	0.7	0.9	4.1	4.2	3.8	3.7	8.0	9.4
	KT	36,300	7.2	19.7	20.4	1.4	1.5	0.9	1.0	4.1	4.3	3.2	3.1	8.1	8.3
	LG유플러스	11,700	3.9	10.6	10.9	0.8	0.8	0.5	0.6	2.7	2.7	3.2	3.1	8.3	8.8
미국	AT&T	18.5	131.8	126.5	122.9	22.8	24.0	19.2	18.9	41.5	42.7	6.8	6.6	13.3	13.4
	Verizon	37.1	155.9	136.8	138.6	30.8	31.2	20.9	21.0	47.9	48.7	6.3	6.2	24.5	21.8
	T-Mobile	142.4	177.1	80.1	82.9	6.9	14.5	2.5	8.3	27.3	29.4	9.2	8.5	3.7	13.0
일본	NTT	3,731	99.2	93.4	92.2	13.6	13.3	8.7	8.8	25.2	25.2	6.9	6.6	14.6	14.4
	KDDI	3,985	67.4	41.6	40.4	8.1	7.9	5.1	5.0	13.9	13.3	5.7	5.7	13.8	13.5
	Softbank	6,052	76.5	47.3	47.4	-1.4	0.9	4.4	4.2	4.4	7.9	45.4	24.2	4.7	5.4
중국	China Mobile	51.6	144.7	134.5	144.3	18.9	20.5	18.2	19.5	47.8	50.6	2.0	1.9	10.2	10.5
	China Unicom	4.6	18.0	50.5	53.4	2.0	2.4	2.4	2.7	14.3	14.9	0.9	0.9	5.0	5.4
	China Telecom	3.1	53.7	69.4	75.0	5.1	5.9	4.1	4.6	19.0	20.3	2.7	2.5	6.5	7.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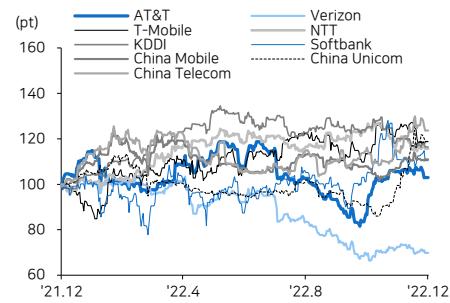
## 5 주요 차트

###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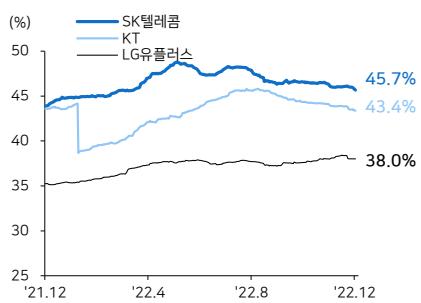
자료: WiseFn

###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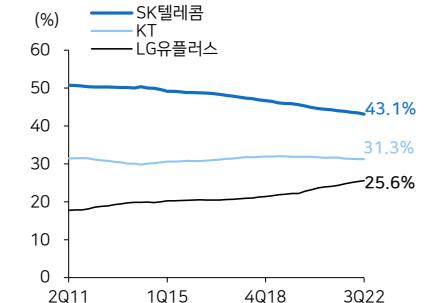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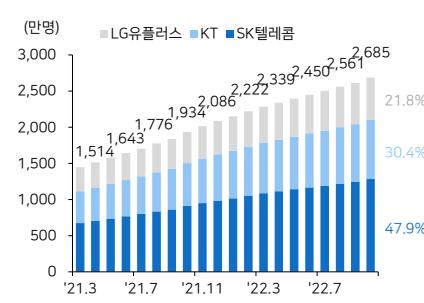
자료: WiseFn

###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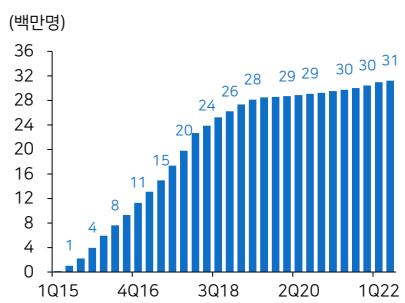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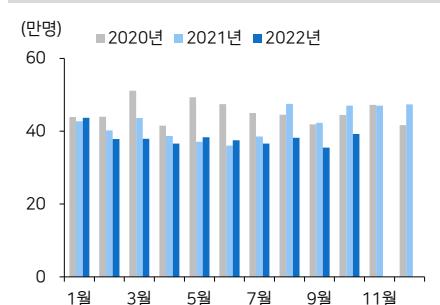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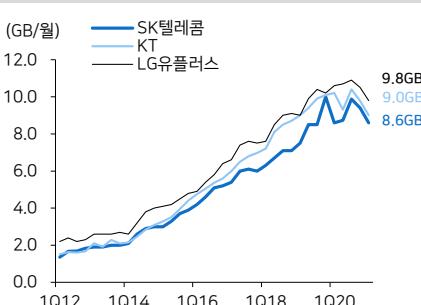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